

우승 시계에 열두 번째 눈금 완성한 '형님 리더십'

7년 만에 KBO 리그 정상에 오른 호랑이 군단이 한국시리즈 12전 전승으로 불패 신화를 재현했다. 'V12'로 역대 최다 우승 팀의 위용이 더욱 공고해진 가운데 왕조 부활의 원년을 선언한 주역들을 한 명 한 명 조명한다. 편집자주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1> 이범호 감독

“선수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자신들의 야구를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되었다. 맡겨진 임기 내에 반드시 팀을 정상에 올려놓겠다.”

지난 2월 갑작스럽게 호랑이 군단의 제 11대 사령탑에 오른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가장 먼저 내놓은 두 가지 약속이었다. 그리고 이 감독은 약 8개월 만에 이 약속을 실제로 구현하며 '초보 사령탑'에서 '우승 감독'으로 거듭났다.

이 감독의 계약 조건은 2년 총액 9억원(계약금 3억원·연봉 3억원)이었다. 감독으로서 첫 발을 떼는 지도자인 만큼 구단으로서는 계약 기간이나 연봉을 높게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감독은 이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2년 내에 정상을 탈환하고 더 긴 임기와 높은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실제로 이 감독은 취임 첫해 V12를 달성하면서 우승 감독에 걸맞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올 시즌 이 감독의 지도관은 포용과 긍정, 믿음으로 대표된다. 호주 1차 스프링 캠프에서 감독직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낸 말이 “하고 싶은 대로 야구해라”였고, 시즌 내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심은 없었다.

포용·긍정·믿음의 최연소 사령탑 '초보 사령탑'서 '우승 감독'으로 7년만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 재현 “선수들이 하고 싶은 야구를 해야”

이 말의 뜻에는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다. 코칭스태프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선수들의 자율성을 배려하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그라운드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라는 의미였다.

또 1981년생으로 현재 KBO 리그 최연소 사령탑인 이 감독은 만형 같은 편안함을 추구했다. 직전 시즌까지 타격 코치로 선수들과 격의 없이 소통해온 만큼 감독이 됐다고 해서 소통 방식의 변화는 없었다.

경기장에서는 강단 있는 결정을 내렸다. 기초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나온다면 칼을 빼들었고 나성범과 소크라테스브리토, 김도영, 박찬호 등 주축 선수들도 예외는 없었다. 대타와 대수비, 구원 등판 등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히 지시를 내렸다.

결정 이후에는 선수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철저히 감쌌다. 승리 투수 요



KIA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지난달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승리, 4선승 고지를 밟으며 우승을 차지한 뒤 땀을 흘리며 축하하고 있다. 뉴스스

건 종족 직전 강판된 양현종을 뒤에서 꺼안는 모습이 중계에 잡히기도 했고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 끝난 뒤 반드시 선수들과 대화를 나눴다. 한 경기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도 절대 없었다.

언론에 비칠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즌 중 김도영과 요나단 페라자의 충돌 이후 손승락 수석 코치까지 언급되며 문제가

불거지자 선수단 보호에 앞장섰다. 양 팀 사령탑의 선후배 관계가 아닌 감독으로서의 역할이 최우선이 됐다.

정규시즌에서 이 감독이 보여준 모습들은 한국시리즈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단 기전이라는 특성상 구상에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감독은 투타 양면에서 정규시즌 내내 갖춰온 운용을 흔들지 않았다.

한국시리즈에서도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한 운영을 이어갔고 선수들은 돌발 변수에 완벽히 대응하는 모습으로 보답했다. 베테랑 김선빈은 6할에 육박하는 타율로 보답했고, 김태균 역시 맹타를 휘둘렀다. 젊은 피 광도규와 정해영도 필승조의 핵심으로 거듭났고, 김도현도 미래를 기대케하는 활약을 펼쳤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순천대 운동부, 전국체전서 우수 성적 거뒀다

소프트테니스·양궁 종목 출전 금 1·은 1·동 1개...530점 획득

국립순천대학교 소프트테니스와 양궁 선수단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뒀다.

순천대 운동부는 지난 11-17일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소프트테니스의 이시원(4년)-김명신(2년) 조는 남대부 개인복식 결승에서 장채수-정승윤(이상 대전대) 조를 5-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 지난 104회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특히 이시원은 대학 1, 2학년 때 다소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으나 3학년 때부터 경기력이 향상돼 전국체전 남대부 복식 2년 연속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

양궁 선수단은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탁해운·최민영(이상 3년)·서보은(2년)·김가은(1년)으로 구성된 순천대 양궁팀은 여대부 단체전 결승에서 '최강' 한국체대와 숭오프 접전 끝에 아쉬운 은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2005년 제86회 대회 단체전 금메달 이후 19년 만의 단체전 입상이다.

서보은은 여대부 개인전 50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순천대 선수단은 소프트테니스 304점과 양궁 226점 등 총 530점을 따내면서 전남의 종합 12위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운동부 육성에 적지않은 걸림돌이 내재된



순천대 소프트테니스부 이시원(왼쪽부터)과 박상엽 지도자, 김명신. 순천대 제공

국립대학교라는 약조건을 뚫고 우수한 성적을 냈다는 점에서 박수받을 만했다.

김문선 순천대 양궁 지도자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단체전 은메달 등을 획득해준 선수들이 너무도 대견스럽다”며 “내년 대회에서는 기필코 단체전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고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상엽 소프트테니스 지도자도 “이번 성적은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며” “내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순천대 소프트테니스와 양궁부의 부활은 약점으로 꼽히는 전남 대학부의 전력에 큰 힘이다”며 “전남도체육회에서 순천대의 경기력 강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생존 전쟁' 광주FC, 대전 상대 잔류 확정 노린다

내일 36R... 홈구장서 무패 행진



광주FC가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잔류 확정을 노린다. 광주 선수단은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만큼 기세를 몰아 생존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2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36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14승 2무 19패(승점 44)로 8위에 자리 잡고 있는 광주는 지난 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 맞대결에서 0-1로 석패하며 승점 확보에 실패, 1부리그 잔류 확정이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광주는 최소 11위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최소 10위를 확보할 수 있고, 다음 날 열리는 대구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 최소 9위까지도 확보가 가능하다.

대전은 올 시즌 10승 11무 14패(승점 41)로 9위까지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2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승점 3점 차로 광주를 맹추격하며 잔류를 위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번 라운드 광주의 키워드는 '자신감'이다. 대전과 통산 전적에서는 11승 10무



광주FC가 2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36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허율(오른쪽)이 지난달 27일 인천유나이티드와 3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12패로 근소한 열세에 있지만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4무 2패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특히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는 4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선수단에서는 최근 변준수의 자신감이 돋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아론 칼버와 맞트레이드를 통해 대전에서 광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변준수는 강력한 제공권과 투지를 바탕으로 탄탄한 중앙 수비를 구축하고 있다.

변준수는 33라운드 서울전에서 허율의 선제골 겸 결승골을 돕는 등 맹활약으로 수훈 선수는 물론 베스트 11에도 선정됐고, 34라운드 대구전에서는 선제골을 터

트리며 무승부에 기여한 뒤 지난 라운드 인천전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비축했다.

다만 사령탑인 이정효 감독의 공백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이 감독은 지난 라운드 인천전 후반 중반 채상협 주심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 올 시즌 세 차례 경고가 누적되며 감독 부임 이후 처음으로 벤치를 지킬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 감독은 항상 준비된 사령탑 감이라고 호평해 온 이정규 수석 코치의 결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힘을 보탤 전망이다.

한규빈 기자